

뜨거운 반응, 행복하나 부담스러워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 한국인 비판》을 쓰고 나서

이케하라 마모루
오사카 라센 판공업 고문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 특히 일본 사람들의 발언에 민감하다. 솔직히 말해 나 자신부터 그 점을 노리고 책을 쓴 면이 있다.”



나는 26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고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한국과 한국인을 비판하는 책까지 썼지만, 때로는 아직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우선 내 책(중앙 M&B)이 이토록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부터가 나로서

는 놀라운 일이다.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아직 나를 '배려죽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어떤 분들은 출판사측에서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일부러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을 거라고 짐작하는 모양이지만, 사실 그 제목은 내가 붙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도 과장이나 허풍이 섞이지 않은, 솔직한 나의 심정이기도 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 특히 일본 사람의 발언에 민감하다. 솔직히 말해서 나 자신부터 그 점을 노리고 책을 쓴 면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래서 맞아죽기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바가지로 욕을 얻어먹을 각오는 했다. 그런데도 뚜껑을 열어보니, 적어도 지금까지 접해본 독자들의 반응 가운데 나를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떤 독자는 이 책을 온 국민의 교과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고, 또 어떤 분은 자기 평생에 화장실도 한번 안가고 단숨에 읽어치운 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런 책이라면 책값이

10만원이라 해도 기꺼이 사서 읽을 거라고 분에 넘치는 극찬을 하기도 했다.

만약 똑같은 내용의 책을 한국 사람이 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똑같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까. 성급한 판단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칙대로 말하자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기주관이 뚜렷하고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있으면 남이야 뭐라고 하든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나는 지금 꽤나 착잡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 한편으로 내 책에 공감을 느끼는 독자들이 많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사람인 내가 그러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못내 부담스럽기도 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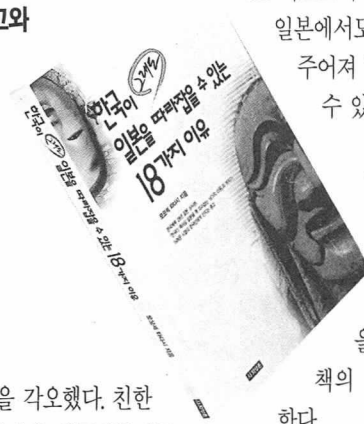
가능성 감춘 한국에 응원

《한국이 그래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18가지 이유》를 쓰고 나서

모모세 타다시
한국 도넨 회장



“제목이 자극적이라 많은 비난이 닥칠 것을 각오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반대로 용기를 갖고 잘 써주었다는 충고와 격려가 쏟아져 놀랐다.”



나는 1997년 여름에 《한국이 죽어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는 18가지 이유》(사회평론)라는 책을 출판했다. 타이틀이 자극적이

라 많은 비난이 닥칠 것을 각오했다. 친한 친구로부터는 성질이 과격한 한국인들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한강에 시체가 떠오르

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충고도 있었다(지금에 와서는 웃기는 얘기지만). 이 책은 1998년 봄 문예춘추사에서 일본어판이 출간됐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비난이 쏟아지려라고 각오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용기를 갖고 잘 써주었다는 충고와 감사한다. 좀더 심하게 써주었으면 했다 등의 격려가 독자 여러분으로부터 쏟아져 놀라버렸다. 독자의 연배도 중학생으로부터 꽤 연세가 많은 분들까지 퍼져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한강에 시체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강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많은 사람들과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행복하다.

제일·재미의 한국인들로부터도 편지, 팩스는 물론 일부러 전화로 감상을 전해주는 사람도 있어 감격했다. 아직까지도 감상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책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작년 말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만날 기

회가 있었다. 그가 사형판결을 받고 형무소에 있을 때 누군가가 이 책을 넣어줘 세번이나 반복해 읽었다고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책을 읽고 나서 제목도 제목이지만 내용도 꽤나 용기 있게 쓴 일본인이 있구나, 만일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형무소를 나가게 되면 꼭 만나보고 싶은 일본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이 그래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18가지 이유》를 두번째로 출간했다. 현재는 확실히 일본이 선진국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중국이 선진국이었던 시기가 길었던 것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일부러 말이나 태도에 나타내버리는 성질이 있다. 같은 태도를 취할 것이라면 요즘의 '하면 된다'는 힘을 다시한번 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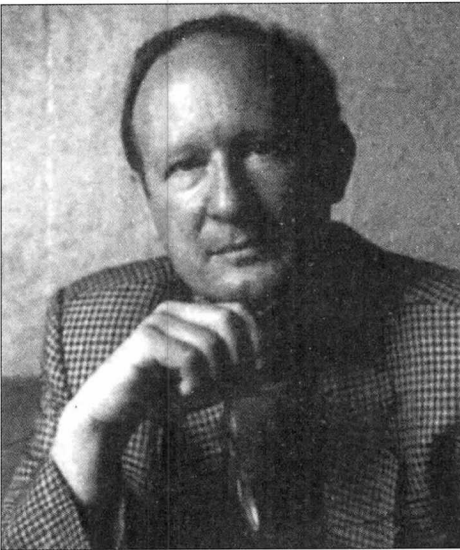
이 책은 가능성을 감춘 한국에 대해 응원가로서 쓴 것이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영국인에게 한국문화 알리고 싶어

《한국인을 말한다》를 쓰고 나서

마이클 브린

《더 타임즈》 서울 특파원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영국 독자들이 한국인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몇 년 전 휴가차 한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 만난 아내의 친척 한 사람이 물었다. “한국이라고요? 베트남의 한 지역이 맞죠?”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영국인들마저 놀랍게도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깊이를 잘 모른다. 그들은 한국을 부정적인 이미지, 즉 전쟁·공산주의·독재·시위 그리고 경제 파국 같은 것과 연결시킨다.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영국독자들이 한국인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경제나 비즈니스에 관한 내용은 아닐지라도 한국과 통상활동을 하는 영국인이 한국측 파트너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좀더 잘 이해하길 바란다.

영국 출판사(오리온 비즈니스)는 이 책이 한국을 여행하는 사업가들이 공항에서 구입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시장조사 후 출판사 측은 이 책의 표지를 밝게 하고 제목을 길게 하자고 결정했다. 왜냐하면 공항서점에선 그런 책들을 자연스럽게 구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책을 쓴 개인적인 동기는 15년 동안 한국인들과 같이 지내면서 느낀 점들을 풀어내보고 싶어서였다. 한국 출판사(홍익출판사)에서 내 책을 번역출간하자고 제의해왔을 때 나는 놀랐다. 한국인들이 나보다 더 자신을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을 아는 것도 흥미롭다는 것을 이해한다.

한국 독자들은 내 책에 한국인들을 향한 어떤 의도나 메시지를 담았으리라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어떤 이유인지, 한국은 한국인들이 좀더 잘 행동하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 가르쳐주고 충고하기를 항상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이 책에서, 한국인들이 빈곤으로 고통받았던 권위주의적 과거로부터 한 세대 안에 자신들의 힘으로 근대의 산업화된 민주주의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세기 가장 놀라운 발전 중의 하나다. 어떤 외부 요인들, 특히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의 나라를 건설해왔고 외부의 충고 없이 그것을 이룩한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다.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책 쓰는 것을 꿈꾼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실제로 책을 쓰는데 뛰어나지 못하다. 저널리즘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실패한 작가들’, 즉 걸작을 쓰기를 바라지만 그럴 만한 에너지와 기회 혹은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나도 그런 ‘실패한 작가’다.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기간 내내 나는 결코 이 직업을 좋아하지 않았다. 나의 참된 욕망은 책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을 말한다》를 쓴 또다른 동기는 작가로서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 잘 알려진 한 한국인의 자서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책을 쓸 계획이다. 그 후에야 한국인과 관련이 없는 주제로 영역을 넓혀갈지 모른다. ◆

성재이동휘전서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전2책/150,000원
우남 이승만문서 동문편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전18책/720,000원
작가론 총서⑩ 김기림 정순진/13,000원
한국시조작가론 원용문/55,000원
엄상섭소설연구 김중균/33,000원
청시화연구 유성준/22,000원
한인 사회주의운동 연구 권희영/28,000원
고려의 무인정권 김당택/20,000원
한국선시연구 박재금/16,000원
재만한인사회와 민족운동 황민호/15,000원
유패된 자아의 소설연구 이대영/10,000원
한국현대시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적 탐색
진창영/20,000원
한국현대시와 자연탐구 정효구/18,000원
조선후기 지방재정연구 장동표/18,000원
연애소설이란 무엇인가? 대중문학연구회/15,000원
중국 수·당사 연구 김명희/15,000원
드라마의 세계 드라마학회 편/18,000원
한국민족운동사의 새로운 방향 민족운동사편/26,000원
〈구인회〉소설의 문학사적 연구 이종재/16,000원
한국현대소설연구 전해자 외/17,000원
창작의 실제 박명용 외/11,000원
한국퇴폐적낭만주의시연구 양예경/20,000원
한국아나키즘운동사연구 오창환/13,000원
한·일 문학의 관계론적 연구 심원섭/20,000원
조선시대의 사관연구 김경수/23,000원
한국현대시 대표작품연구 산용협/28,000원
실화(강원전통문화총서) 최 웅, 김용구/35,000원
한국전기문학연구 소인호/15,000원
한국 소설의 흐름 천이두/20,000원
한국한문소설전집 임명덕/전9책/350,000원
학산이인영전집 김성준/4책/90,000원
조지훈시와 자아·자연의 심연 서익환/17,000원
한국현대소설과 기독교 정신 임영천/16,000원
한국 가정소설사 연구 이성권/15,000원
1950년대 희곡연구 민족문학사연구소/17,000원
탈중심의 시학 송명희/12,000원
문학비평의 언저리 윤병로/13,000원
삶의 중심을 찾아서 박민수/12,000원
여강의 물결 여강시가회/7,000원
불꽃속의 바늘 송명희/5,000원
어느 심심한 구혼 심원섭/5,000원
숨겨진 계절 김중균/15,000원
그림자가 흔들릴 때 채재미/12,000원
다시 사랑을 위하여 산용협/5,000원
푸른 보리밭 오성찬/10,000원
남은 날들의 초상 차성욱/5,000원
낙타 동방으로 가다 구인환/10,000원
작가연구(6) : 특집 김승옥 편집부/9,000원
한국 여행시조 연구 황초기/50,000원
북한문학의 이념과 실제 이명재/20,000원
현역중진작가연구Ⅲ 한국문학연구회/20,000원
작가론 총서⑨ 박경리 최유관/17,000원
태평한화골계전(상하) 박경신/2책/60,000원
뒤돌아 보기·江 박명용/5,000원
한국문학의 논리 임 화/50,000원
작가론총서⑧ 황순원 김중희 외/12,000원
한국 민족운동과 종교 민족운동사편/25,000원
한일양국의 상호인식 한일관계사학회/12,000원
한국 명시 해설 송하선/20,000원
생활 중국어 회화 유려아/8,000원
들꽃의 집 채수영/5,000원
구운몽의 불교사상과 소설미학 유병환/20,000원
현대미론의 방법 이성준/22,000원
한국문학의 현주소 김상선/30,000원
어떤 극장 임상모/4,000원
고금소총 명영지해 정용수/22,000원
황희의 생애와 사상 황영선/17,000원
한국 고전시가의 재조명 이명태/13,000원

동양의 역사와 문화 조영록 외/9,000원
한국 현대문학과 현실인식 서익환/18,000원
문학비평의 규범과 탈규범 윤재웅/18,000원
한국 현대 시인 연구 유승우/18,000원
문학과 진실의 아름다움 신덕룡/15,000원
페미니즘과 우리시대의 성담론 송명희/10,000원
대명률직해이두의 어머어미연구 강 영/10,000원
한국 연극연구 한국연극사학회/17,000원
한국 현대소설의 무의식 양선규/18,000원
한국 현대시의 구조연구 박계숙/15,000원
한국 소설의 논리 양진오/15,000원
고려 후기 사원전 연구 배상현/18,000원
한민족과 민족운동 민족운동사연구회/16,000원
한국 소설의 형성 양진오/13,000원
한국 민요의 유형과 성격 박경수/20,000원
한국전쟁기 중군작가 연구 신영덕/15,000원
한국 전후실존주의 소설 연구 이대영/16,000원
도교와 생명사상 김승혜 외/16,000원
해체시론 이승훈/15,000원
춘향예술사 자료총서 설성경/전8책/각 25,000원
민요(강원전통문화총서II) 김 훈 외/23,000원
문학평론과 인성공부 이동하/17,000원
한국현대소설과 현대성의 미학 김윤정/16,000원
한국 현대문학의 어제와 오늘 박 근/17,000원
한국 노년문학연구 문학 모임/15,000원
강을 건너는 법 송하선/5,000원
김유정의 소설세계 박세현/18,000원
역주 자성록 최중석/20,000원
역주 심경부주 최중석/25,000원
역주 곤지기 최중석/17,000원
해방기소설의 반영의식 연구 송기섭/20,000원
잉글리쉬 워크샵 이영자/10,000원
정명의 만남 김용직 외/25,000원
박상룡 소설 연구 임금복/15,000원
한국 근대사와 농민 소설 조경래/15,000원
문학비평의 욕망과 절제 송기환/15,000원
한자 어소의 의미 기능 연구 김용한/18,000원
한국 한시의 이해 김은수/12,000원
연극의 이해 한옥근/15,000원
현역 중진 작가 연구II 한국문학연구회/25,000원
한국 어문학의 이해 이기서/17,000원
엄상섭 문학의 재조명 문학사연구회/15,000원
한국 문학과 도교사상 박삼서/30,000원
인조·효종대 정치사 연구 이기순/10,000원
한국 현대시의 전통과 새로움 장도준/16,000원
한국가사 연구 김주곤/20,000원
명안 송순시문학 연구 김성기/23,000원
한국독립운동과 중국 한국민족운동사/15,000원
호랑이띠 이창식/7,000원
돼지띠 김중태/5,000원
뱀띠 송영규/5,000원
쥐띠 김의숙/5,000원
개띠 김중태/5,000원
비즈니스 잉글리쉬 이만식/20,000원
한국어를 배우세요 이영자·김윤정/13,000원
문학의 파라마운 윤호봉/20,000원
신석정 연구 국효문/13,000원
한국 의사 교육사 연구 이충호/20,000원
개화기한국기독교민족교육연구 한규원/17,000원
한국 서학사상사 연구 김옥희/60,000원
한국 아담의 문학성 연구 이경우/12,000원
작가연구(5호) : 특집 김수영 편집부/9,000원
한국 가사와 사상연구 김주곤/23,000원

각 도서관에서 본사의 도서검색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공해 드립니다.

극학자료원 도서출판 새미
☎ 2937-949, 2917-948 Fax:2911-628
http://www.kookhak.co.kr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있습니다)